

“대설 지났는데 눈보다 빗꽃 쏟아질 것 같아요”

광주·전남 주말 낮기는 20도 안팎
야외공원·전망대 등 인파로 ‘복직’
“저녁도 안 추워… 색다른 경험”
기상청 “당분간 지속 일교차 주의”



지난 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인근 카페에는 포근한 날씨를 느끼기 위해 외출한 시민들이 많았다.

날이 풀리는 경우가 자주 없을 것 같다. 당분간 야외로 자주 놀러 나와야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8시께 남구 사직공원 풍경도 비슷했다. 해가 저 어둑해진 상황에도 겹옷을 벗어 허리춤에 매거나 아예 ‘반소매 외출’로 나온 이들도 보였다.

가족과 화순에서 온 김상진(39)씨는 “직장 동료들이 ‘사직공원 빛의 숲’을 강력 추천해 방문했다. 마침 날도 좋아 아이들과 밖에서 만끽하고 있다”며 “얼마 전 대설이었는데, 눈보다 빗꽃이 쏟아질 것 같다. 색다른 경험이다. 덕분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간다”고 말했다.

사직공원 전망대 끝층에서 전경을 만끽하던 외국인도 눈에 띄었다. 반팔을 입은 채 연신 ‘WOW’·‘Struth(놀라움)’ 등 감



지난 9일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광주 남구 사직공원 전망대 미디어아트를 즐기고 있다.

탄사를 내뿜던 호주민 레오(27)씨는 “지금 호주 날씨가 한국과 정반대다. 친구가 입국 전 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온도가 높아 놀랐다”며 “반팔을 입어도 전혀 춥지 않다. 되레 공원 내 미디어아트가 너무 예뻐 감탄하면서 왔다. 광주에서 제일 멋진 곳은 이곳인 것 같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광주 사직공원 관계자는 “매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40분까지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따

뜻해 수십명의 방문객들이 대기하기도 했다”며 “평소보다 200명 가량 더 찾은 것 같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유니스코 창의벨트 사직공원 ‘빛의 숲’에서는 이달 말까지 미디어아트 등 ‘크리스마스 광주빛 축제’ 콘텐츠가 진행된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12일~16일 아침 기온은 0~13도·낮 기온은 10~18도로 예

보됐다. 대부분 상황에서 평년 기온(각각 -2~2도·8~10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포근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지만, 일교차가 커 체온 조절을 위한 겹옷 등을 항상 챙겨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주 곳곳 비오는 곳이 있음에도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다”면서 “낮과 밤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기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정상아 인턴기자

대학교수들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

見利忘義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는 뜻의 ‘견리망의’(見利忘義)를 뽑았다.

교수신문은 올해 전국의 대학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견리망의’가 응답자 30.1%(396표)의 지지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는 “사회는 견리망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가 각자도생 싸움판이 된 것 같다”며 “정치란 본래 국민들을 ‘바르게(政=正) 다스려 이끈다’는 뜻인데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가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의로운 정치보다 눈 앞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편에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 피싱, 교권침해 등에 대해서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당화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당장 내 아이의 편익을 위해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됐다. 아이들에게 당장 눈앞의 점수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도리를 뒤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견리망의 하면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공멸하게 된다”며 “올해는 견리망의의 해였다. 내년에는 견리망의가 아닌 견리사의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은 25.5%(335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이승환 고려대 동양철학과 명예교수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해 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 기만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위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 틈에 끼어 인원 수를 채운다’는 뜻으로 24.6%(323표)의 추천을 받은 ‘남우충수(濫우充數)’에 돌아갔다. 김승룡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며 “속임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인 기자

우크라 피난민들, 전쟁 소강국면에 고려인마을 떠난다

향수병 등 고통… 올해 11명 출국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이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고려인마을에 입국해 살고 있던 피난민들이 하나 둘씩 고향으로 떠나고 있다. 올해 벌써 11명째다.

10일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8일 고려인동포신발레리아(55)·고알렉산드르(57)씨 부부가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두 부부의 자녀가 내년 양파·토마토 농사를 위해 복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신씨 부부는 지난해 6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국내로 입국했다.

이들은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한국을 떠날지 고민했으나 녹리지 않은 국내 생활에 복귀를 결정했다. 그간 비좁은 주거시설과 국적취득의 한계 등으로 영구정착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신씨는 “불안한 전쟁 상황이지만 우크

라이나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 일용직을 전전하는 것도 이제는 힘들다. 곡창지대에서 농사꾼으로 지내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고려인마을에는 현재까지 500여 명의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고려인마을이 지원한 항공권을 받아 입국한 후 국내 정착한 900여 명 중 일부다.

처음 광주에 정착했지만 많은 수가 부족한 일자리로 인해 타지로 떠났다. 이 가운데 11명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지난 10월에는 피란민 박에릭(72)씨가 우크라이나 고향 마을을 찾아 지난 1년6개월 동안 머문 고려인마을을 떠났다. 그는 한국에 있으면서 극심한 향수병에 시달렸다. 1년이 넘는 기다림에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박씨는 결국 ‘죽어도 고향에서 죽겠다’는 뜻을 주변 사람

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자체적으로 피란민 정착을 위해 쉽터와 협동 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이 고향을 잊고 새 출발을 하기에는 재정·규모 등에서 한계가 있다. 고려인마을 협동농장은 지난 2월 광산구 새마을회로부터 농지 3000평을 무상 임대 받아 토종닭·친환경 농산물 등을 재배·수확하고 있는 ‘집단 농장’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현지 농지 규모에 비해 작다 보니 되레 고향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게 마을민들의 설명이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마을의 노력에도 피란민들의 전쟁 상처와 향수병을 치유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이제는 피란민들 ‘마음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하다. 마을 예산·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당국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 남구 신축 공사장서 작업자 4m 추락

광주 한 신축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4분 광주 남구 주월동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4m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발목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성아 인턴기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500만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2주일 앞

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의 20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군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대리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변호사비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민섭 기자